



4면

전북교육감 선거전 격화

# 전주매일

5면

푸드테크 3D식품프린팅 산업 발전가능성 모색



대표전화 (063)288-9700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음 4월 4일) 제3977호

www.jjmaeil.com

## 정부, 현대차 새만금 투자 전폭 지원

국가균형발전 핵심 규정...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제3차 회의' 열고 종합 지원계획안 논의

정부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새만금을 첨단 미래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지방 대기업 투자 성공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9일 새만금 현장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대차 새만금 투자프로젝트 정부 종합 지원계획(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와 현대차그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27일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새만금 투자계획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이를 계기로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활성화해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투자계획 발표 직후인 지난 3월부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TF를 운영해 왔으며, 관계부처와 전북도, 현대차그룹이 함께 참여해 지원 계획을 발굴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협의해 왔다.

이번 종합지원계획에는 태양광 발전, 수전해 및 수소 인프라, 로봇 AI 데이터센터 등 현대차의 핵심 투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이 담겼다.

정부는 부지 제공부터 재정·세제지원, 규제개선,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정주여건 개선 인허가 신속처리까지 투자 전 과정에 걸쳐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예산처, 새만금개발청, 전북도는 태양광 발전 부지와 장기임대용지를 제공한다. 산업통상부와 전북도는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며, 관세청은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전해시설과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지컬 AI



현대차 새만금 투자 종합지원계획 발표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그룹 새만금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종합지원계획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그룹 새만금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종합지원계획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교육부는 로봇·AI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고 지정과 특성화대학 운영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협력업체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고,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도로와 인입철도 건설, 수소열차 도입 기반 마련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가 첨단 미래 에너지 산업 중심의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해 새만금을 글로벌 첨단산업 전진기지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련 기업과 협력업체의 추가 투자 및 인력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개별 기업 투자에 그치지 않고 5군 3특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한 국토공간 대전환과 국가균형발전의 대표 성공사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이 투자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

성과 속도'라며 "각 부처와 지방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과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차그룹 역시 계획된 투자를 책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총리가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 투자에 대해 정부가 끝까지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관계부처가 윈윈으로 협력해 투자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규모 민간투자가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인재 양성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10만호 기자

### 올 도내 첫 SFTS환자 발생 전북자치도, "야외활동 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도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농촌지역 고령층과 야외활동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부안군에 거주하는 80대 남성이 발열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한 결과 SFTS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이다. 감염 시 2주 이내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야외활동 시에는 긴팔과 긴바지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과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전북 발전의 자산'

민주 도당, 전북 7대 광역 공약  
14개 시군별 맞춤형 공약 공개  
피지컬 AI · RE100 · 농생명 등 '핵심'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윤준병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공천을 받은 이원택 후보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으로 한 대규모 공약을 발표하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전북 대도약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1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발전을 위한 7대 광역 공약과 14개 시·군별 맞춤형 공약 88개를 공개했다.

이날 윤준병 위원장은 "공천 과정에서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제시했던 정책과 공약들을 하나로 모아 전북 발전의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북 도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와 국가균형발전을 선택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철학 아래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전북의

미래 성장 전략으로 △피지컬 AI 기반 자율 제조 생태계 구축 △재생에너지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문화·관광산업 육성 △첨단 전략산업 확대 △농생명·의료산업 강화 △국가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금융중심지 조성 등 7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AI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전북을 대한민국 자율 제조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를 위해 피지컬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 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로봇 메가 특구 지정, AI 기반 스마트팩토리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새만금을 국내 최초 RE100 선도 산업단지 조성하고 영농용 태양광과 조력발전 확대, 양수발전소 유지 등을 통해 전북을 국가 재생에너지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과 영화·영상산업 거점 구축, 전통문화 산업 육성을 통해 전북을 글로벌 K-문화수도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2차전지·그린바이오·수소산업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2면에 계속  
/10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내가 살고 싶은 지역 투표로 만듭니다

자세한 선거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을 위해 정책과 공약을 꼭 살펴보고 투표하세요

### 선거일 투표

일 시 | 6월 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장 소 | 지정된 투표소  
\* 거주지 투표는 투표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사전 투표

일 시 | 5월 29일(금)~5월 30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장 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

### 지방선거 투표용지 가이드

-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 의회선거
- 지방의회 의원: 시도 의원선거 (지역구), 구·시·군 의원선거 (지역구), 시도 의원선거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선거 (비례대표)
- 지방교육자치: 교육감 선거

세종·제주 (4장) |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

---

### 지방선거 투표 전 체크리스트

- 입장 확인하기
- 내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 확인하기
- 신분증 챙기기
- 유의사항 확인하기

- 투표 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두 명 이상에게 기표 시 무효)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됩니다.
- 투표할 때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 사전투표를 한 후 선거일에 그 사실을 숨기고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 투표지를 찢는 등 훼손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